

尹 “의원 끌어내기 불가”… 조성현 “알면서 지시했나”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번째 재판
"임의해석" vs "이례적 명령" 공방
조성현 단장 "명령 합법적이어야"
尹 피고인석 앉은 모습 처음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1일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상대로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 보이느냐’며 증언 신빙성을 따지고 있다.

이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 리느냐’며 그런 지시를 받은 게 맞냐고 반박하고 해당 지시의 정당성과 합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규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에 나섰다.

조 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급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해당 증언을 언급하며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느냐’고 물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

겠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느냐'는 질문에는 "군사작전적으로 할 지시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답하자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진우가 증인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고 하자 조 단장은 “여기서 다뤄야 할 건 그런 지시를 저에게 줬다는 것이고 해석은 나중에 이진우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이어가자 조 단장은 “수 차례 진술했다”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 단장은 증인신문 답변 과정에서 계
엄 당일 상황에 관해 ‘이례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그는 “군에 명령은 굉장히 중요하고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반드시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방위하는 육군으로 귀결돼야 한다”며 “그 지시가 그랬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앞은 모습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7분께 법정에 들어서 둘째 줄 가장 안쪽자리 피고인석에 앉았다. 구속 피고인 등이 들어오는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입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채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취재진의 카메라 촬영으로 곳곳에서 플래시가 터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고 굳게 입을 다문 채 맞은편 검사석만 응시했다. 변호인과 잠시 컷속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오전 10시께 재판부가 들어와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고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판을 위해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취재진 퇴장 뒤 재판을 시작했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기록이 남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는 건 이날이 처음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서울=김선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전남도, 멸종 위기 '토종 참김' 복원한다

종자배양 성공...2028년 복원 기대
“소득 증대·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토종 참김’ 복원에 나선다.

21일 전남도해양수산물과학원에 따르면 수년간의 관찰과 조사를 통해 2022년부터 참김 종자를 확보하고, 2024년 종자배양 기술을 확립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신품종 개발을 위한 시험 양식 및 선발 육종에 나선다. 오는 2028년까지 양식 대상종으로의 복원 및 신품종 개발이 기대된다.

토종 참김은 조선 인조시대(1640년) 광양군(현 광양시) 태인도에서 최초로 양식된 품종이다. 인조 임금의 수라상에 진상되면서 참김의 고소하고 바삭한 맛을 인정받았다. 당시 김씨가 양식을 해 ‘김’이라 불리게 됐다고 전해진다.

전남도 기념물 제113호인 ‘광양김식지’의 ‘김 식식지 유래비’에 따르면 김여익은 김여준과 함께 병자호란 때 의병을 지휘해 청주까지 복상하다가 조선과 청의 화의가 이뤄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1640년 광양에 정착해 살면서 김을 양식하며 살았다고 한다.

참김은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예로부터

양식한 주요 품종이었으나, 20년 전부터 환경적 요인에 의해 자원이 줄면서 자연 암반에서 찾기도 어려웠다. 성장은 다소 느리지만 김의 맛을 결정하는 아미노산의 함유량이 높고 맛이 좋다. 품질을 우선시 하는 최근 소비 흐름에 맞는 최고급 브랜드 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현재 참김 업체에서 과포자(씨앗)를 방출시켜 패각사상체 및 유리사상체로의 분리 배양에 성공했고, 종자배양 조건 및 기술도 확보했다.

올 가을부터 토종 참김 시험양식을 통해 양식가능성, 품질 및 내병성, 수익성 등 산업화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이며, 선발육종을 통한 신품종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전남 시외버스 노선 82% 적자...보전에 도비 160억

나광국 “운영체계 새로 구축해야”

전남지역 시외버스노선의 80% 이상이 적자를 보여 운영 효율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나광국(더불어민주당·무안2) 전 남도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시외버스 노선 218개 중 179개(82%)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적자 보전을 위해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이번 추경을 통해 20억원이 늘어나 총 160억원에 달한다.

나 의원은 “지속적인 재정 지원에도 시외버스 이용객은 줄고, 서비스 질은 낮아

저 재정만 반복 투입되는 악순환 구조"라며 "정부의 벽지 노선 지원사업 등 국비를 확보하고, 도민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외버스 운영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현실에서 지금의 방식으로는 적자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현하려면 혁신적인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이에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전남도의 광역 대중교통 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그린  알로에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 입니다.